

벌초·추석연휴 코로나 확산 '분수령'

도, 이달말 귀성객·관광객 제주행 여부에 초긴장
 온천 6명·게스트하우스 11명 등 코로나19 위기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도민들 "벌초·차레 고민"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는 벌초 시즌과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귀성객과 관광객 등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수도권은 2.5단계, 지역은 2단계를 각각 시행하며 오는 13일과 20일까지 각각 연장 발표했지만 이후 추석 연휴가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정되면서 이 기간에 다시 재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8명(격리 중 20명, 격리 해제 27명, 이관 1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산방산탄산온천발 6명과 게스트하우스발 11명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온천과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도는 거짓 진술로 추가 확진자(40·42·44·46번)를 발생하게 한 목사부부(29·33번 확진자)에 대해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의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 야간파티를 진행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 단계에 머물며 적극적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벌초 시즌과 추석

연휴 기간에 앞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민과 타지역 관광객의 제주 왕래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도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 단계에 머물며 적극적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사회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벌초와 추석 차례지내기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전처럼 벌초와 차례를 지내며 조상에 대한 예를 지키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다.

김모(57·제주시 일도동)씨는 "가족이나 일손이 많은 벌초를 제주에 사는 사람만 하거나 걱정이고, 코로나 때문에 타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내려와 함께 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벌초나 차례상 차리기로 행여 가족간 불화가 나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해 5일간(9월 11~15일)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1일 평균 4만7358명씩 모두 23만6790명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선박 점검하는 선원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6일 성산포항에 대피한 선원들이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시국, 우리·안전·마음으로..."

도, 벌초 방역 3대 수칙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벌초시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벌초 방역' 3대 수칙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 단위에

서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수도권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가 발표한 벌초 방역 3대 수칙은 '이번 벌초는 우리끼리', '이

번 벌초는 안전하게', '이번 벌초는 마음으로' 등이다.

타지역 친척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벌초 종료 후 뒤풀이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벌초방역 3대 수칙의 실천을 위해 자생단체와의 협력을 비롯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도민 대상 방역수칙 홍보, 민간자생단체 연계 벌초 방역수칙 안내, 도청·행정시를 포함한 도내 행정·공공기관 대상 방역수칙 전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전국 시도지사 '4·3특별법 개정' 힘 보탬까 오는 12일 협의회 정기회 촉구 건의안 안전 상정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전국 지방의회의가 속속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안전으로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16개 전국광역시도회의장에게 해당 건의안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전국

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정기회 안전 상정을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았다.

건의안의 주용 내용은 국가 권력이 가진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를 건의하는 것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남도의회에서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6명이 공동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서부 복합체육관 내년 문 연다

도 357억 투입 도평동에 건축
 부지 매입 이어 건축설계 공모

내년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연동·노형동·의도동 등 제주시 서부지역에 대규모 복합체육관이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도평동 소재 1만4631㎡(4425평)의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 4일자로 건축설계 공모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서부복합체육관은 357억원(국비 107, 지방비 250)을 들여 내년 말까지 연면적 8800㎡의 지상 3층·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진다. 도로 개설 1169㎡(353.6평)도 사업에 포함돼 있다. 백금탁기자

이곳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볼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갖춰진다. 스쿼시장과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요가교실, 키즈존, 스모트댄스, 상상공작소 등이 이뤄지는 문화·체육을 공감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갖춰질 계획이다.

공사비는 282억원이며 건축설계공모 따른 결과는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국경과제인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운동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한편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도내 인구의 17.5%인 1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도내 다른 지역보다 공공체육시설이 모자라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백금탁기자

소상공 경영자금 특별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

을 수 있고, 이자차액보전도 3.0%로 상향 지원(일반 2.1%)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 적용(일반 보증 0.8~2.0%내외)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이태윤기자

정성으로 다진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위한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

(주)월드씨앤에스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그리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상감시장비 및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제조, 공급합니다.

(주)월드씨앤에스 대표이사 김용광

CMC-200

WCNS-LPR320

WCS-312

WCS-715

WCS-602

WCS-511

WCS-713

WCS-716

☎ 본사/공장/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길 174
☎ 064)753-3001
☎ 064)782-3003
✉ worldcns@hanmail.net
🌐 http://www.worldcns.kr